

다산포럼

쥐와 야합한 고양이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다산 정약용의 작품 중에 '고양이'란 제목의 장편 우화시(寓話詩)가 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가 온갖 못된 짓을 해서 주인의 근심이 가득한데, 한술 더 떠서 이 고양이가 쥐들과 야합하여 온 집안을 축대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왜 쥐와 야합을 했을까? 이 시에서는 "쥐들은 훔친 물건을 뇌물로 주고/ 태연히 너와 함께 돌아다닌다" "이로부터 쥐들은 꺼릴 것 없어/ 들락날락 깔깔대며 수염을 흔든다"라 묘사되어 있다. 쥐들이 고양이에겐 뇌물을 바친 것이다. 그래서 뇌물을 받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야 한다는 자신의 본분을 망기하고 쥐들과 한통속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현실의 생태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왜 이런 기상천외의 발상을 하게 되었을까? 다산은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 사회의 부정부패를 풍자하기 위하여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도둑과 도둑 잡는 관리의 결탁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집 주인은 일반 백성에, 쥐는 도둑에, 고양이는 도둑 잡는 관리에 비유되어 있다. '목민심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를 말해 준다. "무릇 포도군관(捕盜軍官)은 경향을 막론하고 모두 큰 도적이다. 도적과 내통하여 그 장물을 나누어 먹고, 도적을 풀어 도적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며, 수령이 도적을 잡으려고 하면 미리 기밀을 누설시켜 도적으로 하여금 멀리 달아나게 하고, 수령이 도적을 처형하려고 하면 비밀히 옥졸을 사주하여 옥졸로 하여금 도적을 고의로 놓치게 하니 그 천만 가지 죄악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전6조'(吏典六條), '어중'(駁條) "포도군관은 도둑 잡는 임무를 맡은 관리인데 이 포도군관이 도둑과 내통한다는 것이다. '목민심서'의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도둑이 '도둑잡'을 개입할 때

포도군관에게 '신고식'을 해야 하며, 처음 세 번까지는 훔친 장물을 모두 군관에게 바치고 네 번째부터는 3·7제로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다산은 우화시의 형식을 빌려 이 기막힌 현실을 고발하고 풍자한 것이다. 이런 일이 다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강남의 유흥업소 '버닝썬' 사태가 그것이다. 도둑에 관한 일이 아니라도 무릇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하면 세상이 못 할 짓이 없고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없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마약 밀매, 성관계 동영상 몰래 촬영, 폭력, 미성년자 출입 등의 불법 행위가 '버닝썬'에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이면에 뇌물 거래가 있었을 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관계는 거의 확실로 굳어지는 듯하다. 과거 '버닝썬'의 관할 부서인 강남경찰서에서 클럽·주점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윤 모 총경

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대기 발령 상태에 있고,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도 네 명이나 된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현직 경찰관이 직접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 A 경감은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직접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했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 그는 자신이 업소 운영의 전면에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한 중공 동포를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했다고 한다. 그는 또 다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B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번 주 무슨 요일에 단속이 뜨니 주의하라'는 등의 단속 정보를 알려 주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일부 몰지각한 경찰관에 게만 해당되는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일일이라도 단속하는 경찰과 단속받는 유흥업소의 이러한 유착 관계는 고양이와 쥐가 야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고양이는 모름지기 고양이의 본분을 지켜 쥐를 잡아야 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으면 세상엔 너무도 많은 쥐들이 들끓을 것이다. 이 나라의 고양이들이여! 제발 본분을 지켜 주기 바란다.

교단에서

교육은 힘들어도 힘 나는 일이다



김진우
일신중 교감

학교는 3월이 가장 바쁜 달이다. 신입생이 들어오고, 진급한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반을 이룬다. 바뀐 담임 선생님과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시간이다. 1년 중 그 어느 달보다도 3월은 중요한 시기이다. '봄철에 비가 잦으면 가을 시어머니 손이 커지고, 곡우(穀雨)에 비가 안 오면 눈이 석자 갈라진다'는 속담이 있다. 철에 맞게 비가 내리고, 시기에 맞게 손길이 고루 가야 농사가 잘 된다. 쌀밭에서 인심 난다고 했으니 풍년이 되면 시어머니 손길이 후할 수밖에. 학교는 3월 농사가 일 년 농사를 가능할 정도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만나게 되는 첫 대면, 첫 몇 마디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미치 엘름이 쓴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은 주인공 에디를 통해 인간이 살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생전의 다섯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삶을 역사해보는 줄거리이다. 첫 번째 만난 사내는 운전 중에 야구공을 잡으려고 길에 뛰어든 어린 에디를 피하려다 사고로 죽었다. 에디는 자신 때문에 운전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천국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전투부대 상근 대위였다. 전쟁 중에 당한 부상으로 평생을 원망으로 살았던 에디는 자신을 비롯한 부하들을 살리고 전사한 대위의 사연을 듣고 '희생'이란 꼭 읽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깨닫는다. 무관심과 학대로 미워하며 살았던 아버지와의 관계, 뇌종양으로 일찍 떠나보낸 아내 등의 이야기이다. 사소한 말 한마디, 언권이 없을 것 같은 행동 하나에 타인의 일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공을 넘나들면서 보여준다. 실은 천국까지 갈 것 없이 이승에서도 약연이든 인연이든 한두 가지 결정적인 사연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얼마 전에 제자로부터 커피 한잔을 대접받았다. 졸업 후 처음 만났다. K상고 야간 산업체 근로 학급에서 가르친 제자다. 선한 목소리와 호리한 몸매는 그때

로였는데 연 수억 매출의 세탁소 사장이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일곡지구에서 이름 있는 H세탁소이다. 그동안 객지로 떠돌아다니며도 잊지 않았다고 했다. 제자는 커피색 같은 고고 시절의 칙칙한 가난을 들려주었다. 세탁 기술을 배우고자 양동, 월산동의 세탁소를 돌아다녔는데 열다섯 번째로 찾아가던 세탁소에서 자신을 받아주었다. 고고를 졸업하고 경기도 부천으로 가서는 세탁소 19곳을 찾아가 취업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 마지막으로 고향 사람을 만나 취업을 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선, 세탁, 배달을 하면서 자수성가했는데 자신도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몇 사람의 인덕(人德)이 컸다고 했다. 담임 교사였던 나도 한마디 없을 것 같은 행동 하나에 타인의 일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공을 넘나들면서 보여준다. 실은 천국까지 갈 것 없이 이승에서도 약연이든 인연이든 한두 가지 결정적인 사연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얼마 전에 제자로부터 커피 한잔을 대접받았다. 졸업 후 처음 만났다. K상고 야간 산업체 근로 학급에서 가르친 제자다. 선한 목소리와 호리한 몸매는 그때

학생은 이 제자 한 명이었다. 같은 직장끼리 학생들은 잘 어울려 다니는데 이 제자는 혼자인 것 같고, 세탁소에 다니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가슴아기도 해서 격려를 해주고 싶었다. 하루는 반 학생들이 앉혀놓고 제자를 일어서게 하였다. 흐릿한 형광 불빛이 학생들의 눈꺼풀에 내려앉는 밤 종례 시간이었다. "우리 대성(제자)이는 세탁소로 출세할 것 같으니 미리 응원하길 바랍니다." 뜬금없는 제안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쳤다. 월급이 더 많은 일자리 앞에서도, 육체적으로 더 힘든 직장의 유혹에서도 그날 들었던 '세탁소로 출세할 것이다'란 말을 되뇌면서 버텼다고 한다. 무심코 건넨 한마디 말이 한 학생의 평생 농사를 좌우할 수 있다. 이제 제자는 세탁소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세탁 기술 교육원'의 꿈도 가지고 있다. 교육 현장이 어렵다. 그렇지만 30여 년 전에 건넨 격려 한마디가 '성공한 세탁소'가 되어 찾아왔으니 이럴 때마다 교육은 힘들어도 힘이 나는 일임을 또 깨닫는다. 새봄에는 쪽국에 쌀밥을 놓고, 내가 걸어온 교직 생활과 제자가 세탁한 세월을 안주 삼아 소주 한잔 마시기도 했다.

기고

꿈의 산업과 광주



남진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해외 콘텐츠 시장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2조 2040억 불이며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37.1%인 8165억 불을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매출액 규모는 2018년 610억 불 규모로 세계 7위이며 수출액도 69억 불로 매년 6%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며 고성장,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고수익·고위험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영화 '극한 직업'은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 95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하여 1625만 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해 14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반면 셉트리는 서정진 회장이 전액 투자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은 15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하였으나 누적 관객 수가 17만 명에 불과, 매출액은 12억 원에

그쳤다. 같은 날 개봉한 영화 "황거: 유관순 이야기"는 1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113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것과 대조된다.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을 유지하는 것은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과 애플, 구글 등 IT 산업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1941년 진주만 공습을 기획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 함대 사령관은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하였는데 1939년 개봉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본 후 이러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과 스케일을 가진 나라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야마모토는 모나코 카지노에서 출입 금지지를 당할 정도로 도박을 좋아했다. 유럽에 2년쯤 더 있으면 균형 한 척을 살 정도의 돈을 벌었는지 모르나며 농담을 하였는데 진주만 공습도 결국 도박하듯 베팅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미디어 랩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산업의 50퍼센트가 여가와 오락 산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관광, 문화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관광·문화 산업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다. 세계 지방 도시중 스토리텔링으로 문화·관광 매력 도시가 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인구가 15만 명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지난해 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은 모차르트의 고향인 음악 도시라는 점과 미국 헐리우드에서 1969년 제작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 명성을 얻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는 변변한 것 없는 해변 마을에서 지금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방문하여 쿠르츠선에서 내릴 수 있는 관광객 수를 하루 4000명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 서울 공화국의 그들은 문화·관광 분야도 다르지 않다.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문화 콘텐츠 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서울이 64.1%, 경기도 21.6%로 수도권이 85% 이상이다. 이어 부산 2.4%, 대구 1.8%, 대전 1.1%, 경북 1.2%, 경남 1.3%인데 비해 광주는 0.9%, 전남은 0.4%에 머물고 있다. 변명과 불만이 교차하는 탈산업화 시대의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거대한 정부도 거대한 자본도 아니다. 개인 경쟁력

을 키우고 개인의 역동성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개인 경쟁력으로 승부하려면 모든 문화 산업의 원천인 스토리텔링 산업의 발전이 절실하다. IT 기술 혁신에 따라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인 공용의 플랫폼이 만들어짐에 따라 과거 국가와 글로벌 기업이 주도한 경제 성장을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각종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개인이 주도한다. 일례로 작년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조회수가 52억 뷰이고 유아용 콘텐츠 브랜드인 핑크퐁이 제작한 '아기 샴어'는 조회수가 22억 뷰를 넘어 9주째 미국 빌보드 차트 30위권 안에 들고 있다. 스토리텔링 산업은 반도체 산업을 압도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꿈의 산업'이라고도 한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문화 콘텐츠를 지역과 한국을 넘어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세계적 브랜드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이다.

社說

농업 체험 시민 참여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참가자 모집 공고를 사전 예고 없이 접수 당일이나 전날 업무 시간 이후에 홈페이지에 갑자기 올린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이를 알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온 가족 힐링 원에 체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친환경 벼농사와 곤충 놀이, 우리 밀 꾸김 등 다양한 농업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한때 참여자 모집 공고는 지난 14일 업무 시간이 끝난 오후 7시 44분께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접수는 다음날인 오전 9시부터 시작돼 3시간 만에 마감됐다. 특히 애초 모집 공고에는 선착순으로 12가족 4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으나, 광주일보 취재 결과 추가

공고도 없이 20가족 80명이 최종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접수 당일해야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지난 4일부터 접수를 받은 '빛고을 귀농·귀촌 교육'은 당일 오후 3시 28분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앞서 '용기종기장 가공 교실'은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 42분 모집 공고와 함께 접수를 받았다. "깜짝쇼" 하듯 진행된 모집 일정 공고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모집 과정에 모종의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실로 운영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이처럼 진행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센터 측은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때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모집 일정을 알리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때문에 노딜로 끝나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개혁의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상당수 덮어낸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그 설립 취지까지 훼손하며 후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전철철 의원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절대 안 된다"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 얘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에

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고 반기 어려운 안을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협상이 주춤거리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제 패스트트랙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 두고 있다"며 "노딜"은 최악의 선택이지만 만큼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보여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님 게 아니라 최근 불거지거나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같은 권력형 범죄도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처럼 몽골 수는 없었을 것이다. '권력기관의 비호' 아래 불법 행위가 묻히지 않도록 공수처법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실패하면 선거제 개혁도 물 건너가고 만다는 점이다. 여야 4당 특히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저버림으로써 역사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탑은 남으로 반면(半面)을 남기고 북으로 반신(半身)은 무너져 세멘트로 멋있게 분장(粉粧)해야 실로 반신불수가 되었으나 고(高·높이)가 43척(尺)이오 주위 백책에 달하는 화강암의 건조로 초석만 잔재한 미륵사의 폐허에 마왕기둥 울림 하얏스나...”

1928년 7월 23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마한 고도행(古都行)' 3' 기사 중 일부다. '이리 PH생'이라는 필자는 '동양 일(-)의 탑'이랄지 '흘림'(屹立·꺾이지른 듯이 우뚝 솟아 있음) 혹은 '용림'(嶺立·산이 나 나뭇잎이 우뚝 솟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화적 자부심을 드러낸다.

지난 주말 익산 미륵사지를 찾았다. 최근 복원을 마친 미륵사지 서탑(西塔·국보 11호)을 직접 보기 위함이었다. 미륵사지 입구에서 바라보면 용화산(일명 미륵산) 남쪽 날찍한 터에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선 두 개의 하얀 석탑이 눈에 들어온다. 오른쪽 탑은 지난 1993년 9층으로 복원한 동탑이고, 왼편 탑은 최근 복원을 끝낸 서탑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탑은 일제강점기 때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문화재청은 2001년 10월부터

8년 동안 서탑의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석재를 하나하나 해체해 복원했다.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복원을 마친 서탑을 한 바퀴 돌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연한 황토빛이 감도는 옛 돌과 하얀 새 석재가 어우러져 탑 몸체를 이루고 있었다. 성급하게 9층으로 새롭게 지은 동탑과 달리 서탑은 6층 미완성으로 복원했다. 그렇지만 화려했던 백제 문화를 느끼기에 부족하지 않은 위용을 하고 있다.

터방 민륵사 터와 반쪽 석탑을 보며 갖는 사라진 백제 역사에 대한 아쉬움은 인근 전시관 내 유물에서 상쇄된다. 무엇보다 '3탑 3금당(金堂·법당) 형식으로 조성된 미륵사 원형을 모형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석탑 1층 심주석 중앙 사각형 사리공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호(壺)'와 '금제 사리 봉영기(奉靈記)'는 많은 유물에서 절과 탑을 세웠던 백제인의 마음과 닿는다. 또한 붉은 색으로 얼굴 측면을 그린 '얼굴 그림수막새'와 석탑 네 귀퉁이를 지키는 석인상에서 백제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봄날, 미륵사지를 찾아 백제 무왕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면 어떨까? /송기웅 문화2부장 song@

미륵사지 서탑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 | | |
| 1952년 4월 20일 창간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특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